

##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요인

강지연<sup>1</sup>, 전만중, 유병철, 이용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건강증진센터<sup>1</sup>,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The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Ji-Yeon Kang<sup>1</sup>, Man-Joong Jeon, Byeng-Chul Yu, Yong-Hwan Lee

Health Promotion Center, Gospel Hospital,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sup>1</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 Abstract

**Background** : To access the influential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estranged elderly.

**Method** :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during the period from June 2007 till September 2007. Investigation subjects were 152 elderly people registered in two welfare centers in Busan. We measured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dummy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ver 12.0k) program.

**Result** : The mean score of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was  $2.52 \pm 0.56$ .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was relatively high in groups of 65-69 years old, elementary school graduates, subjectively healthy, exercise, hobby or leisure activity, regular repast, 3 times repast per day and incom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was influenced by age, religion, satisfaction of income,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and regular repast.

**Conclusion** : From the result, we can concluded that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was low and influenced by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refore, methods for improving life satisfaction level of low 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are required for discerning our society's equality and healthiness.

**Key words** :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life satisfaction

### 서 론

현대사회의 발전은 보건의료기술의 진보, 생산기술의 향상, 도시화,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가져왔으나 전통적 생활습관의 붕괴와 함께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노인문제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현상의 한 가지이다.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는 가족 내 노인 지위의 하락, 노인의 역할상실, 경제적 궁핍, 노인성 질환,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 등의 많은 노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sup>1)</sup>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고 이에 따라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UN은 노인의 연령인구 비율이 전체인구비율의 7% 이상을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또는 후기 고령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3.8%였으나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9%를 넘게 되었다.<sup>2)</sup> 2018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3)</sup>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

교신저자 : 유 병 철  
주소 :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L : 051-990-6425 FAX : 051-990-3081  
E-Mail : ybc777@mail.kosin.ac.kr

행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고령화를 급속히 촉진시키는 요인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인데, 우리나라는 1970년 남자 59.8세, 여자 66.7세로 63.5세의 평균수명을 나타내었으나 200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남녀 모두 70세를 넘었고 2020년에는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평균수명이 81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5)</sup> 그리고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의 경우 1970년 4.5명, 1983년 2.1명 1990년 1.6명, 2003년 1.19명 등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6)</sup>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전통적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핵가족화 현상 등과 함께 노인 단독 및 노인 부부 가구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노인 100명 중 18명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중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1990년 8.9%에서 2005년 18.0%로 1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7)</sup>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나 자녀들로부터 보호,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독거노인은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악화, 고독감, 외로움, 소외감 등 여러 문제를 갖게 되며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은 주거환경, 경제, 건강, 정서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sup>8)</sup> 노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과 복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노인의 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인 생활만족도는 노인의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또는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로서,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높은 노인 생활만족도는 확일적인 조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특성,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앞으로 다가 올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의한 노인문제들 중 저소득 독거노인과 관련된 특성, 생활실태 및 생활 만족도 등을 알아보고,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 연구대상과 방법

### 1. 연구대상

부산시 소재 종합복지관 2곳에 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자가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60명의 대상자 중 부적절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8명을 제외한 152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Havighurst<sup>9)</sup>에 의해 고안된 LSI(Life Satisfaction Index)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김정순,<sup>10)</sup> 최성재,<sup>11)</sup> 홍순혜,<sup>12)</sup> 장상희,<sup>13)</sup> 윤진,<sup>14)</sup> 김훈경 등<sup>15)</sup>이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노인 생활만족도 설문지의 구성은 통합력(10문항), 생애 애정(9문항), 성취감(5문항), 자아감(2문항) 등 4개 하부요인과 전체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인 문항에서 “아주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잘 모르겠다”에 3점,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으로 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전체 생활만족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0.927$ , 하부 구성요소에 따라 통합력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0.835$ , 생애 애정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0.864$ , 성취감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0.834$ , 자아감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0.484$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12.0K)을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t-test, one-way ANOVA 및 더미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1명(13.8%), 여자 131명(86.2%)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98명(64.5%), 학력별로는 무학이 73명(48.0%)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는 사별이 125명(82.2%),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이 99명(65.1%),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100

명(66.4%), 자녀가 있는 군이 120명(78.9%)으로 나타났으며 독거가 시작된 연령은 60세 이후가 65명(42.8%)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N)	Proportion(%)
Age(years)	65 - 69	29	19.1
	70 - 74	46	30.3
	75 ≤	77	50.6
Gender	Male	21	13.8
	Female	131	86.2
Religion	Yes	98	64.5
	No	54	35.5
Education	Illiteracy	73	48.0
	Elementary school	58	38.2
	Above Middle school	21	13.8
Marital status	Divorce	15	9.9
	Separation	4	2.6
	Separation by death	125	82.2
	Single	8	5.3
Offsprings	Yes	120	78.9
	No	32	21.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2	7.9
	Moderate	41	27.0
	Bad	99	65.1
Exercise	Yes	51	33.6
	No	100	66.4
Beginning age of living alone	< 40	31	20.4
	40 - 59	56	36.8
	60 ≤	65	42.8
Total		152	100

2. 연구대상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주택 소유형태는 전세가 61명(40.2%), 월수입은 20 - 34만원이 68명(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에 대한 만족여부는 128명(84.2%)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노인은 83명(54.6%)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군 중 하루 2끼 이하의 식사를 하는 군이 31명(62.7%)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 23명(15.1%),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노인이 54명(35.5%), 의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47명(30.9%)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구대상자 중 66명(43.3%)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되었다(Table 2).

Table 2. Living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N)	Proportion(%)
Type of housing occupancy	Monthly rent	47	30.9
	Tenement	61	40.2
	Permanent rent	44	28.9
Utilization of welfare institution	Yes	23	15.1
	No	129	84.9
Hobby or leisure activity	Yes	54	35.5
	No	98	64.5
Regular repast	Yes	83	54.6
	No	69	45.4
Number of repast (times/day)	≤ 2	31	62.7
	3	52	39.3
Difficulty of purchase clothes	Yes	47	30.9
	No	105	69.1
Satisfaction of income	Satisfaction	3	2.0
	Moderate	21	13.8
	Dissatisfaction	128	84.2
Monthly income (Won)	< 200,000	62	40.8
	200,000 - 340,000	68	44.7
	350,000 - 500,000	22	14.5
Receip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Yes	66	43.4
	No	88	56.6
Total		152	100

3.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전체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2.54 ± 0.56 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로 통합력 2.70 ± 0.65, 생애애정 2.36 ± 0.64, 성취감 2.20 ± 0.63, 자아감 3.38 ± 0.78 점 등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and living alone old people

Variables	Life satisfaction score (Mean ± SD)
The integration ability	2.70 ± 0.65
The zest of living	2.36 ± 0.64
The achievement in life	2.20 ± 0.63
The affirmative identification and affirmative attitude	3.38 ± 0.78
Life satisfaction(total)	2.54 ± 0.56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연령에 따른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는 65세-69세 2.79 ± 0.60, 70세-74세 2.47 ± 0.50, 75세 이상 2.49 ± 0.55 등으로 나타나 연령군에 따라 유의한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28$ ).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  $2.42 \pm 0.56$ , 초등학교 졸업  $2.69 \pm 0.51$ , 중학교 졸업 이상  $2.52 \pm 0.59$ 로 각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9$ ).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건강하다고 표현한 군에서  $2.71 \pm 0.72$ , 보통이라고 표현한 군에서  $2.85 \pm 0.51$ ,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표현한 군에서  $2.39 \pm 0.50$ 으로 나타나 각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 운동여부에 따른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운동을 하는 군에서  $2.73 \pm 0.50$ ,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2.44 \pm 0.56$ 으로 나타나 운동을 하는 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p=0.002$ ) 자녀유무, 종교유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lif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Satisfaction score (Mean $\pm$ SD)	p
Age(years)	65 - 69	2.79 $\pm$ 0.60	0.028
	70 - 74	2.47 $\pm$ 0.50	
	75 $\leq$	2.49 $\pm$ 0.55	
Gender	Male	2.52 $\pm$ 0.40	0.888
	Female	2.54 $\pm$ 0.58	
Religion	Yes	2.60 $\pm$ 0.58	0.074
	No	2.43 $\pm$ 0.50	
Education	Illiteracy	2.42 $\pm$ 0.56	0.019
	Elementary school	2.69 $\pm$ 0.51	
	Above Middle school	2.52 $\pm$ 0.59	
Offsprings	Yes	2.53 $\pm$ 0.57	0.631
	No	2.58 $\pm$ 0.53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71 $\pm$ 0.72	0.000
	Moderate	2.85 $\pm$ 0.51	
	Bad	2.39 $\pm$ 0.50	
Exercise	Yes	2.73 $\pm$ 0.50	0.002
	No	2.44 $\pm$ 0.56	

**5. 생활상태에 따른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입의 만족도에 따른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수입이 충분하다고 답한 군에서  $2.62 \pm 0.61$ , 보통이라고 답한 군에서  $2.88 \pm 0.67$ , 부족하다고 답한 군에서  $2.48 \pm 0.52$ 로 각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9$ ). 규칙적인 식생활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규칙적인 식생활을 한다고 말한 군이  $2.71 \pm 0.54$ 로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군  $2.33 \pm 0.5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000$ ). 일평균 식사횟수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일평균 식사횟수가 3회인 군이  $2.81 \pm 0.54$ 로 2회 이하인 군  $2.55 \pm 0.51$ 보다 높게 나타

났다( $p=0.030$ ). 취미 또는 여가활동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취미 또는 여가활동이 있는 군  $2.71 \pm 0.54$ , 없는 군  $2.45 \pm 0.55$ 로 나타나 여가활동이 있는 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p=0.006$ ). 그 외 주택 소유형태, 복지시설 이용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5).

**Table 5. Comparison of life satisfaction by living characteristics**

Variable	Classification	Satisfaction score (Mean $\pm$ SD)	p
Type of housing occupancy	Monthly rent	2.49 $\pm$ 0.53	0.437
	Tenement	2.61 $\pm$ 0.54	
	Permanent rent	2.49 $\pm$ 0.62	
Utilization of welfare institution	Yes	2.57 $\pm$ 0.70	0.761
	No	2.53 $\pm$ 0.53	
Hobby or leisure activity	Yes	2.71 $\pm$ 0.54	0.006
	No	2.45 $\pm$ 0.55	
Regular repast	Yes	2.71 $\pm$ 0.54	0.000
	No	2.33 $\pm$ 0.51	
Number of repast (times/day)	$\leq 2$	2.55 $\pm$ 0.51	0.030
	3	2.81 $\pm$ 0.54	
		2.45 $\pm$ 0.55	
Satisfaction of income	Satisfaction	2.62 $\pm$ 0.61	0.009
	Moderate	2.88 $\pm$ 0.67	
	Dissatisfaction	2.48 $\pm$ 0.52	
Receip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Yes	2.55 $\pm$ 0.52	0.892
	No	2.54 $\pm$ 0.59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by dummy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Classification	$\beta$	range	p
Age(years)	65 - 69	0.197	0.314	0.028
	70 -74	-0.117		
	75 $\leq$	0		
Religion	Yes	0.201	0.201	0.035
	No	0		
	Satisfaction	-0.214		
Satisfaction of income	Moderate	0.281	0.495	0.035
	Dissatisfaction	0		
	Good	0.163		
Subjective health status	Moderate	0.391	0.391	0.001
	Bad	0		
	Yes	0.048		
Hobby or leisure activity	No	0	0.048	0.615
	Yes	0.206		
Regular repast	No	0	0.206	0.013
	Yes	0.122		
Exercise	No	0	0.122	0.169
	Illiteracy	0.044		
	0.15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151	0.151	0.345
	Above middle school	0		

(R)<sup>2</sup> = 0.336. Adjusted (R)<sup>2</sup> = 0.279. F(D) = 5.608(0.000)

## 6.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더미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입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규칙적인 식사 여부, 종교 등의 순서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 고 찰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부양과 보호를 담당했던 가족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서 보호,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거나 실제적으로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독거노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sup>16)</sup> 이러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의 한가지로 생활만족도가 활용되고 있다.<sup>17)</sup> 생활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며 모든 노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이다.<sup>18)</sup> 본 연구는 국가로부터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는  $2.54 \pm 0.56$ 점으로 조사되어 보통이하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한 김훈경 등<sup>15)</sup>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가 노인운동 참여자에서  $3.57 \pm 0.52$ 점, 노인운동 비참여자에서  $2.93 \pm 0.53$ 점으로 나타나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일반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65세 이상, 70세~74세 미만, 7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최은영<sup>19)</sup>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 이는 75세 이상 노인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상대적 적응의 정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된다. 노인의 환경 적응에 따른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견해로는 연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이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수연<sup>20)</sup>의 연구가 있으며 연령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남녀가 비슷한 정도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Liang<sup>21)</sup>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명자<sup>22)</sup>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비록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Liang<sup>21)</sup>의 연구는 문화적 토대가 다른 서구사회에서 적용한 연구이기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김명자<sup>22)</sup>의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추정된다.

종교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종교가 없는 군보다는 있는 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류동훈,<sup>23)</sup> 이가연 등<sup>24)</sup>, 차용은<sup>25)</sup>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생활이 노인의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정서적 안정을 주기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초등학교 졸업, 중졸 이상, 무학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에 비례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상희<sup>26)</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정도에 따라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생활만족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학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중졸이상의 독거노인이 초등졸 독거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교육수준에 비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유무에 따른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78.9%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왕래가 많지 않았으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자녀유무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따른 만족도는 수급자일 경우 소득에 대한 안정으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자들 중 기초생활수급 지정이 되지 못한 노인들의 대부분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었으며 이러한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의 생활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못지않게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건강한 편이라고 표현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표현한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호한 건강상태가 역할 수행정도를 높여주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김미라<sup>27)</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인 이가연 등<sup>24)</sup>, 차용은<sup>25)</sup>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이 생활만족도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별 인식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건강상태를 인정하고 건강하다고 표현한 노인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표현한 노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노인들 중 건강한 편으로 생각하고 응답한 노인도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부정확한 응답에 의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보편견이 생기게 되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추정된다.

복지시설 이용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복지 시설을 찾아가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이 15.1%로 나타나 전체 연구대상자에 비하여 제한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복지기관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를 받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고, 집 가까이에 거주하는 또래노인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취미 및 여가활동여부에 대한 만족도는 취미 및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하지 않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이 노년기의 인생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이선미<sup>28)</sup>의 연구와 일치하며 노인에게 있어 여가의 의미는 젊음이나 중년과는 달리 생활의 대부분이 여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 여가활동은 생활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sup>29)</sup>

규칙적인 식생활 여부와 일평균 식사횟수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일평균 식사횟수가 2회 이하 보다는 3회에서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노인은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노인보다 정서적인 안정감과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식사 횟수가 정상적일수록 활동량이 많고 건강상태가 양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운동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생활운동을 하는 군에서 하지 않는 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김훈경 등<sup>15)</sup>의 연구결과, 운동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비참여 노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인 자긍심과 활력감이 높게 나타난 정희찬<sup>30)</sup>의 연구결과,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긍정적인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는 김진수 등<sup>31)</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결정되는 것보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신체적으로 쇠약하기 쉬운 노년기에는 건강과 관련된 사안들이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이유 중의 한가지라고 생각된다.

수입의 만족도에 따른 결과는 보통이라고 답한 군이 가장 높았고, 충분하다, 부족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Usui 등<sup>32)</sup>은 주위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더 풍족하다고 지각하면 할수록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고, 최혜경,<sup>33)</sup> 김종숙<sup>34)</sup>의 연구결과에서 경제적 안정도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수입의 만족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결과에서 충분하다고 응답한 군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명(2%)밖에 되지 않아서 생긴 바이어스라고 생각된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더미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수입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규칙적인 식사 여부, 종교 유무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희 등<sup>35)</sup>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결정 요인을 연령,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결혼상태, 은퇴, 주거 및 물리적 환경, 사회적 접촉 등 이라고 하였으며 김훈경 등<sup>15)</sup>의 연구에서는 운동, 가족지지도, 직업, 고부관계, 학력 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 대상자 및 생활만족도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공통적으로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 운동여부 등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근로를 원하는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지원하여야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정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및 의

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지역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의료복지 제도의 보완을 통한 실제적인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영양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가정가사도우미 제도 등과 유사한 가정관리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결식노인을 위해서는 식사지원 또는 배달 등의 복지 정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결 론

본 연구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소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종합복지관 2곳에 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152명을 대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54 ± 0.56 점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65세~6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초등학교 졸업 군에서 가장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을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생활을 할수록, 일평균 식사 횟수가 3회 일수록, 취미 및 여가활동을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더미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종교유무, 수입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 상태, 규칙적인 식사 여부 등이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을 위하여 근로를 원하는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정책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관리해주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관리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최일섭, 최성재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6
- 2) 통계청 : 고령자통계, 2007
- 3) 이해영 : 노인복지론, 2006
- 4) UN :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집, 2005
- 5)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6) 이해영 : 노인복지론. 창지사 : 14-15, 2006
- 7) 통계청 :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2005
- 8) 유정순 : 저소득 독거노인과 일반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요구도 조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9) Havighurst, R, J. :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1: 8-13, 1961
- 10) 김정순 :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 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1988
- 11) 최성재 : 노인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 : 233-258, 1986
- 12) 홍순혜 :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13) 장상희 : 대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사회조사연구, 2 : 49-64, 1983
- 14) 윤진 :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5
- 15) 김훈경, 이용환, 유병철 :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고신대학교 의과대학학술지 22:21-33, 2006
- 16) 김미영 : 독거노인의 건강기능상태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7
- 17) 김태현 : 노년학. 교문사, 1998
- 18) 김기태 : 노인복지실천론. 양서원, 2002
- 19) 최은영 : 노년기 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20) 김수연 : 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21) Liang J. :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7 : 100-108, 1982
- 22) 김명자 :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1982
- 23) 류동훈 :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활동에 관한 비교.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4) 이가연, 배두이 : 유료시설 노인의 입소동기 및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4(2), 2004
- 25) 차용은 : 유료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한양대학교 가정학 박사논문, 1994
- 26) 장상희 :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조사연구 2(1), 1983
- 27) 김미라 :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8) 이선미 :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29)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 인간발달. 교문사, 1989
- 30) 정희찬 :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31) 김진수, 김윤주 :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체육학 논문집 25, 1997
- 32) Usui, Keil, During : Socioeconomic Comparison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Vol 40, 1985

- 33) 최혜경 : 노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34) 김종숙 :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7
- 35) 박광희, 한혜경 :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학회지, 2002